

충발연, 2008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이사진과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7년 사업결산 및 2008년 정관·직제 규정·인사관리규정 등의 개정, 임원 선임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공주시 금홍동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했으며 충남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공동연구는 물론 미래발전 구상을 위한 창의적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의 실리콘벨리, 충청권 유치 총력



대전특구(대전권)~오송·오창(청주권)~세종시(공주·연기권)를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충청권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충청권공동발전연구원(단장 육동인)은 4월 1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문규 충남도의회회의장, 학

계 전문가, 그리고 3개 시·도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중의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안”은 기초과학연구시설 및 연구소 건설, 과학비즈니스 모델 확립 및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과학·예술·문화·산업의 국제적 융합도시 완성 등 총 3단계로 시행되는 도시 계획을 기반으로 충청권을 동북아 최고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과학중심도시, 즉 한국의 실리콘벨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중이온가속기 시설의 세계적 사례”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원자력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정부가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구축하고자 하는 가속기는 중이온가속기로 경주에 건설중인 양성자 가속기나 포항의 방사광가속기와는 규모, 이용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면



시 “충청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오창 바이오클러스터, 세종시 건설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클러스터 형성 초기의 단순 군집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융합형 기술 개발이 가능한 기반연구시설과 연구인력 확보를 통해 자생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일차적으로 가속기는 벨트

트 구축의 중요한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근 교수는 “가속기가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연구시설임에는 틀림없다.”면서 “가속기 설립이 단기간의 사업 비즈니스와 연결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격에 맞는 가속기 종류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과학자와 관련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청부데이 임호범 기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의 자생력과 필요성에서 제기되지 않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시급히 추진되는 것은 자칫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의 당위성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려 벨트 구축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주제 발표자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상철 교수는 “충청권은 전국적으로도 과학기술부분 투자와 활발한 경제활동 지역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향후 초광역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력 체제, 지역 간 능동적 협력과 적극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충청권의 국제과학비즈니스 구축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청테크노파크 김학민 원장은 “3개 시·도(지역)의 역할과 분야 및 산업적 융합의 문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시행착오를 다시 한번 겪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접목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지역별 특성과 기능을 연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한남대학교 강병주 교수는 “충청권은 서해안 개발의 연계축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내륙중심부는 서울 등 수도권내 거대 도시축과 경부축, 호남축을 잇는 도시개발 및 간선교통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고,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새로운 국제생산 및 교역중심지로 등장하는 등 비즈니스에 적절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충청권의 벨트 구축 타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충북대학교 안성호 교수는 “성공적인 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고 벨트 구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벨트 구축이 갖는 구체적 의미와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조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반드시 충청권에 유치되어야 함을 한번 더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3개 시·도는 벨트의 충청권 유치 타당성을 널리 알리고, 벨트 유치와 관련한 내·외부적 갈등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주시, 현안과제 대안 모색 워크숍 개최



2010년 대백제전 개최를 비롯한 공주시의 현안과제 대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공주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4월 22일 오후 4시부터 이준원 공주시장, 이동섭 공주시의회위원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교수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발

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 16개 시·군을 돌며 매년 개최하는 현안과제 해결 모색을 위한 세미나의 일환으로써 “2010 대백제전을 통한 공주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지방중소도시의 대기업 유치방안”, “공주시 환경색채 성립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배재대학교 박근수 교수는 “2010 대백제전은 공주시에서 특히 부족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전제한 뒤 “체계적인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준비팀을 법인화하여 민간전문가가 행사를 전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그래야만 체류형관광객을 위해 조성해야 할 신규 숙박촌이나 기존 숙박인프라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체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의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공주시의 도시경관 정비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충남발전연구원 이충훈 연구위원도 “공주시의 주거지구는 저채도와 고채도가 혼재된 주황과 회색 중심의 무겁고 수수한 이미지가, 특히 상업지구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고채도의 색상을 부문별하게 사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주시의 환경색채 디자인 컨셉을 Memory(기억)와 Transition(변화)으로 설정하고 역사와 문화, 전통이 살아 숨쉬는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흐름의 미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경원대학교 소진광 교수는 “지방중소도시는 ▲저렴한 경제공간 조성 ▲관리기능 위주의 기업선별 ▲인접 지역의 기업환경 및 입지 기업의 생산조직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자녀교육여건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과 프로그램 등 소비자로서의 기업 여건 개선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연결망,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자본이 충분해야 대기업 유치 가능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공주시의 편리한 교통망과 세종시와의 연계발전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유치 가능성은 있지만 저렴한 단지 조성 및 사회적 자본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일이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공주시 한 관계자는 “공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0 대백제전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발연, 찰리 울프(C. Wolf) 소장 초청 특강 가져

-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진지한 토론 열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4월 24일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총발연 및 충남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찰리 울프(C. Wolf) 미국 사회환경연구소장을 초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제로 특강 교육을 실시했다.

울프 소장은 지난해 총발연과 함께 장항산단 깃벌조사에도 참여했던 환경전문가로서 국제영향평가학회장을 역임했다.

충남도,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방위산업 생산기반 취약, 집적된 국방산업기관의 시너지 끌어내야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국방대의 논문 유치라는 성과와 함께 충남을 국방과학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충청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4월 29일 오후 3시부터 충남연 대회의실에서 충남연 및 학계 전문가, 그리고 충남도와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세발표자로 나선 충남연 이관불 박사는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충남은 우리나라 최대의 방위산업의 집적지로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건인 신속한 의사결정,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안정적인 지역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충남지역이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국내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박사는 또 “충남에 국방과학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적 제도 정비와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국방기술상업화센터 및 국방복합기술센터의 설립,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산업대학원 개선, 그리고 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한 국방문화부어리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 박휘락 교수도 “방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군대에서 수요를 도출하는 단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방위산업체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와 장비, 물자 등을 적재적소에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박 교수는 “충남은 군사이론적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잘 갖춰져

있는 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방위산업체와 연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군-민-관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세미나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지역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하여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총발연 관계자는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완·종합하여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금산군, 5대 테마 14개 부문 발전 계획 나왔다

- 29일,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최종보고회 가져



“인삼”, “문화”, “환경”을 중심 테마로 「생명·문화금산」이라는 비전을 채택한 금산군의 종합발전계획이 제시되었다.

29일, 금산군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금산다락원에서 가졌다.

본 발전계획은 기 수립된 「AGENDA 2015」 장기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향후 5년(2008~2012)간의 금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중기계획에서 금산군은 「NEW CHANGE! 금산 - '새로운 도약, 빛나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Culture)', '화합·조화를 이루는 정주지(Harmony)', '쾌적한 어메니티 환경(Amenity)', '아름다운 금수강산(Nature)', '인삼·약초 건강도시(Ginseng)', '활력 넘치는 경제사회(Economy)'를 내세웠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5대 테마 14대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시책 및 개발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금산인삼테마파크 조성', '금강변 건강체험관광지 조성', '금산인삼 3G(금산인삼세계화) 프로젝트', '금산 New-Town 조성', '금산 해피랜드(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금산군의 오랜 숙원사업이거나 새롭게 금산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금산군 전체를 4개의 개발권역으로 구분하여, 금산읍, 금성면은 '중심거점개발권'으로서 금산의 중심거점기능을 담당하는 개발전략을, 추부면, 복수면, 진산면은 '대도시근교개발권'으로서 대전권 연계 및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의 수요에 대응한 개발전략을, 군북면, 제원면, 부리면은 '금강레저개발권'으로서 금강의 수변생태자원과 산림자원을 이용한 개발전략을, 남일면, 남이면은 '산림휴양개발권'으로서 산림휴양자원 및 기타 관광자원을 이용한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금산군 4개 개발권역

구분	해당 지역	주요 개발 전략
중심거점개발권	금산읍, 금성면	금산의 중심거점기능을 담당
대도시근교개발권	추부면, 복수면, 진산면	대전권 연계 및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의 수요에 대응
금강레저개발권	군북면, 제원면, 부리면	금강의 수변생태자원과 산림자원을 이용
산림휴양개발권	남일면, 남이면	산림휴양자원 및 기타 관광자원을 이용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은 새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맞춘 전략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국비재원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본다.”며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동철 금산군수, 황장순 금산부군수, 금산군 주요 실과장, 관계사업소장, 그리고 충발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충남 '서해안 관광 되살리기' 제언 봇물

- 전국 관광학과 교수, 전문가 및 관광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



유류피해 극복과 서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서해안 관광활성화 심포지엄」이 충청남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관광학회의 주관으로 5. 30(금) 태안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 제1부에서는 동아대학교 황영현 교수가 "관광목적지의 환경재

해 및 사고의 극복사례"를,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오순환 소장이 "친환경에서 즐거운 관광지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한 과제"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희수 책임연구원이 "관광 산업적 측면의 영향과 전망"을,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박사가 "친환경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제2부에서는 박석희 경기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제1부 발제자 4명과 함께 교수, 연구원 및 공무원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국 으뜸 여름 휴가철 휴양지로 각광을 받아오던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은 지난해 12월 7일 뜻하지 않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해 최악의 해양 오염 피해를 입은바 있으나,

이후 전 국민의 따뜻한 온정과 130만 여명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안가 백사장 및 수질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최근 전문연구기관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적 피해를 입었던 만리포 등 일부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와 모래층 성분을 조사한 결과, 개장에 문제가 없는 해수욕장 수질 기준인 1급 수질로 판정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태안 등 충남 서해안 지역은 상당수의 잠재 관광객들에게는 여전히 해양 유류 유출사고 오염 지역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 온 국민이 예전처럼 즐겨 찾는 관광지로 거듭 태어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번 심포지엄은 유류 피해지역이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관광 산업 붕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수 주민이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국의 교수 및 관광 전문가 등의 학술적 제언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전국 관광 관련 학계 명사들의 서해안 유류 피해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각종 관광 활성화 정책 제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유류 피해 지역이 환경 대재앙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로 거듭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2008년 상반기 공개경쟁 신규연구원 임용 및 임명장 수여

충남발전연구원은 2008년 상반기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2명의 신규연구원을 임용하고 6월 2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서별 신규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임 준 흥	정 옥 식
직 급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부 서	도시계획연구팀	환경생태연구팀
연구분야	도시계획	야생동물

충발연, 개원13주년 기념식 및 체육행사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6월 13일(금) 연구원 대 운동장에서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개원13주년 기념식 및 체육행사”를 가졌다.

김용웅 원장은 기념사에서 “연구원의 13번째 생일을 맞아 충남 도민과 이완구 충남도지사 및 16개 시·군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면서 “연구원의 역량 강화와 창의적 연구 방

법을 통해 충남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도시계획연구팀 조봉운 박사가 10년 근속 감사패를 받았으며, 이어 벌어진 체육행사에서는 축구, 발야구, 계주 등 운동 경기를 통해 연구원의 화합을 다졌다.

충발연, 창의적 싱크탱크를 향한 혁신 마인드 고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문건 원장 초청 특강 교육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6월 17일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및 충남도산하연구기관, 대전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문건 원장을 초청, “창의적 싱크탱크를 향한 연구원 혁신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은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출신인 정문건 원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정연의 조직 진단 및 연구원 혁신을 위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로 다 연구기관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강에 나선 정문건 원장은 “민선 4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미래형 조직이라는 근본적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정연의 경우, 혼자하는 연구, 총체적 관리 부재, 서울시라는 틀에 갇힘, 경쟁없는 동기부여 등의 4가지 독이 분체의 근원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시정연은 ▲조직구조의 역동성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혁신 ▲성과창출형 평가보상 ▲인력 전문성 제고 ▲예산구조 개혁 등 5대 핵심과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종합연구기관’이란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연구원의 통합적 연구를 위해 기존 6부 체제를 2본부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연구기획 기능의 강화를 위해 산재해있던 연구지원 기능을 ‘기획조정실’ 하나로 통합하여 유기적 지원체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정연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혁신전략을 수행하여 2011년부터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강 교육을 개최한 충발연 관계자는 “시정연이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각 연구조직의 혁신 의지를 모아 실정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간다면 창의적 싱크탱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KAIST 미래도시연구소와 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이하 '충발연')과 KAIST 미래도시연구소 (소장 김진근, 이하 'KIUSS')는 6월 24일 오전 11시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충발연의 정책적 도시계획방법과 KIUSS의 공학적 도시설계방법간의 연구 조화를 통해 보다 양질의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성과물 및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유관행사의 공동개최, 연구과제 공동수행 등 다양한 연구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제적, 전문적 지식과 인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충남의 도시정책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양 기관의 협력 연구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서는 KAIST 미래도시연구소의 박희경 교수를 초청, “도시인프라 재생기술의 개발방향”이란 주제 강연도 함께 이어졌다.

충남발전연구원 신창수 사무처장 퇴임



충남발전연구원 신창수 사무처장이 6월 26일 퇴임식을 갖고 1년 5개월 몸담았던 충발언을 떠났다.

신창수 사무처장은 청양군 부군수를 지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면서 성공적인 연구원

신청사 이전과 다양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하였다.

퇴임식에서 김용웅 원장은 “떠나는 신 처장님의 제2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연구원들의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